

정운호 동방신기 해체설에 입열다 "악성루머 믿지 않으셨으면.."

입력 2009. 9. 2. 15:43 · 수정 2009. 9. 2. 15:43



[뉴스엔 글 배선영 기자/사진 지형준 기자]동방신기 정윤호(유노윤호)가 오는 9월 9일 첫방송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맨땅에 헤딩'에서 연기자 신고식을 치룬다.

정윤호는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가해 동방신기 해체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윤호는 이와 관련, "지금은 아무 말씀 드릴 수 없다.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악성 루머들을 믿지 않으셨으면 한다. 내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한다"며 "드라마 촬영 차 밤샘촬영을 많이 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멤버들에게 응원 문자가 많이 온다. '처음이니까 많이 떨린다고 예쁘게 봐달라'고 했다. 이에 멤버들이 많이 응원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또 정윤호 주연의 드라마 '맨땅에 헤딩'은 천재적인 슈팅 감각을 가졌지만 패스는 모르는 차봉군(정윤호)과 초보 에이전트 강해빈(아라)의 로맨스와 차봉군의 인간 승리를 그린다. 첫방송은 9월 9일 오후 9시 55분.

배선영 sypova@newsen.com / 지형준 jeehouse@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 뉴스엔.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